중앙버스전용차로제-광역간선급행버스 만든다

전북도에 전주권 이외 도시들과 연계하는 급행버스제 운영 제안
전주시, 우선적으로 전주에 중앙버스차로제 도입을 위한 용역 추진
중앙차로제는 신호연동형으로 기린대로 홍산대로 백제대로에 적용

전주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권동혁 기자

전주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주권 이외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도입도 전북도에 제안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도로 1차로를 물리적인 시설이나 차선으로 구분해 이용 우선권을 버스에 주는 제도다. 시내버스가 차로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연동형 신호를 받아 일반 차로 이용 때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장점이 있다. 시에서 해당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려는 도로는 전주의 남북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신시가지를 관통하는 홍산대로 등 3개 구간이다. 용역은 3월께 들어갈 예정으로 효과성을 검토한다.

중앙차로제는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 대구, 세종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첫 해 서울의 교통사고가 16% 가량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반면, 지난해 부산에서는 77%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중앙차로제는 버스가 전용 신호를 받아 이동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는데, 실제 전주에서 얼마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중앙버스차로제에 이어 전주권 이외의 도시를 급행버스로 연결하는 광역버스체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광역간선급행버스는 전북권을 이동하는 도민이 시외버스에 의존해야 했던 대중교통체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기존 체계를 이용한 대통교통 이용시 전주에서 군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시외버스-시내버스라는 환승을 거쳐야 한다. 반면 새로운 시스템은 버스가 거점 정류장만 정차한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대중교통 이용이 지금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간선버스가 출발점에 없을 때는 환승센터에서 쉽게 갈아탈 수도 있다. 이에 따른 환승센터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전주에서는 3월 용역 예정인 중앙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 도심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또 광역간선버스 도입으로 승객이 줄어드는 시외버스는 광역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광역간선급행버스가 각 시·군과 연계해 운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면서도 "타 시·군에서 전주권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전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노후주택 개보수 전문 인력 7명 모집

3~10월까지 지붕개량 등 수행

전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2021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7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총괄반장 1명과 도배·장판 분야 3명, 지붕·창호·건축 설비 분야 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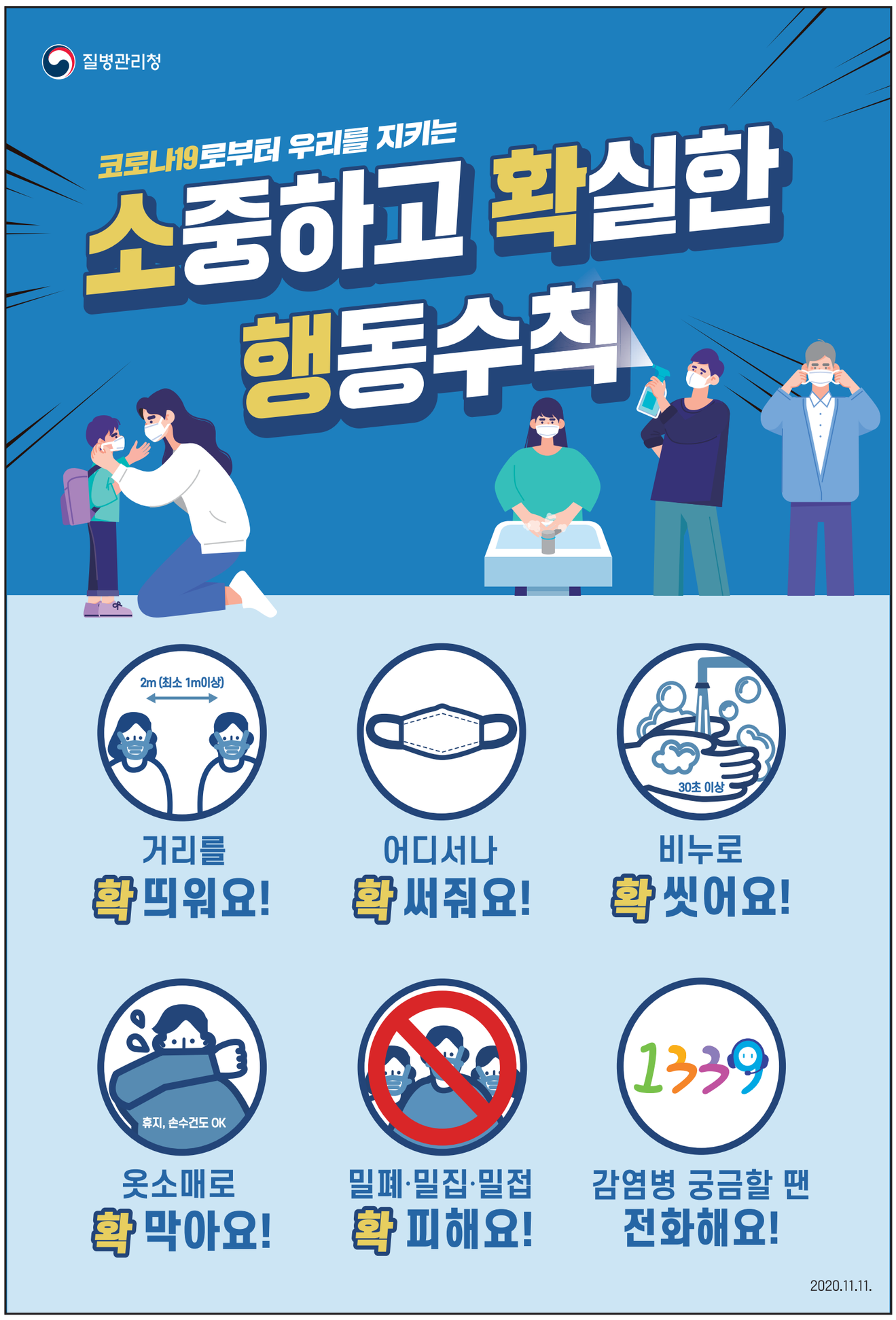
응시 자격은 공고일(1월 27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로, 해당 분야에서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이다. 도배·장판 또는 지붕개량(목공)·창호교체·건축설비 등 건축 분야 작업 수행이 능숙한 사람이 우선 채용된다.

채용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6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22일 채용인력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노후주택 개보수 전문인력팀은 3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지붕개량 △도배·장판 교체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화장실 수리 등 노후주택 개보수에 참여하게 된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은 "재능과 기능을 갖춘 전문 인력이 많이 참여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전주형 착한 선결제 민간으로 확산

시,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 등과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협약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는 27일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호일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실장, 김상태봉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영지원본부장, 고성욱 휴비스 전주공장장, 부정필 전주페이퍼 인사총무팀장, 임동욱 유니온시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또 홍성환 비나텍 상무이사, 임동식 하이트진로 전주지점장, 서한국 전북은행 수석부행장, 이진산 농협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정경철 북전주세무서장, 장영철 전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등도 함께했다.

각 기업과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캠페인은 10~30만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집이나 회사 근처 음식점, 예술공연 티켓, 화훼업소 꽃바구니 비용 등을 선결제한 뒤 이용하면 된다. 현금과 전주사랑상품권 모두 가능하다. 전주사랑상품권은 한시적으로 혜택이 20%까지 주어지며 월 충전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어났다.

특히 시는 해당 캠페인을 민간으로까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9일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통장협의회 등 11개 민간·자생단체와 '함께해' 챌린지를 추진한다. 이 챌린지는 11개 단체 소속 300여 개 단체 9,400여 명이 단체별 달성 목표금액을 정한 뒤 소속 단체 내에서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동체 정신과 강력한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켜내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전북도교육청, 문화 · 인권감수성교육 강화

찾아가는 문화 · 인권감수성교육 강사단 구성 및 역량강화 연수 추진

전북도교육청은 민주시민을 기르고 다문화감수성 신장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교수, 유·초·중등교원, 다문화교육 관련 유관기관 근무 이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강사단을 구성했다.

강사단은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2시간씩,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1~2시간씩 문화·인권감수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북다꿈교육정책의 이해 △문화인권감수성교육의 실제1.2 △2021년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교육 강사단 활동 안내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편견 해소와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좋은 신문, 여러분의 제보로 만듭니다.

사회부 063) 230-5850 정치부 063) 230-5821 경제부 063) 230-5840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